

(Bishopdale Reformed Church translated sermon summary: Morning service)

설교주제: 언약의 하나님께서 개입하다 [사사기 13]

설교자: 레이니어 노퍼 (Reinier Noppers)

1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십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2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중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생산치 못하더니 3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잉태하지 못하므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4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찌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찌니라 5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6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고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임하였는데 그 용모가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우므로 어디서부터 온 것을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7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을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8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의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로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9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셨으나 그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10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 남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임하였던 사람이 또 내게 나타나이다 11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사람이니이까 가라사대 그로라 12 마노아가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이까 13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14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서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15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16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시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리나 내가 너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찌니라 하니 이는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인줄 알지 못함을 인함이었더라 17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이까 당신의 말씀이 이를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송하리이다 18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니라 19 이에 마노아가 염소새끼 하나와 소제물을 취하여 반석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사자가 이적을 행한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본즉 20 불꽃이 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단 불꽃 가운데로 좃아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이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21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이에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줄 알고 22 그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23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24 여인이 아들을 낳으매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25 소라와 에스다울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사사기 12장과 동일한 일들이 반복됩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그 악에 블레셋 사람들과 강력한 적으로 응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들과 타협하고 동화되어 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영적, 문화적 유혹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이스라엘을 볼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더욱 놀랍니다! 여기에 참된 은혜와 자비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구세주로 개입하셨습니다. 사실: 마노아의 아내는 불임이었습니다. 마노아는 이스라엘의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불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위해 아이를 허락하셨습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이 말씀을 순전히 받아들였습니다. 마노아는 그의 아내처럼 그렇게 쉽게 설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그에게 직접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마노아에게 더 이상의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즉,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확신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1) 받아들일 만한 응답?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얼마나 기적적인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가장 깊은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참조). 경건한 두려움만이 유일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우리는 은혜로 그분 앞에 서 있습니다! 은혜로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누가 이런 반항적인 백성에게 나오겠습니까? 자비로 가득 찬 하나님이 아니라면 누가 자신을 거부한 자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섬길 준비를 하십시오! 구세주가 태어났고 그의 이름은 삼손이었습니다! 그의 탄생을 알리신 주님은 그의 삶을 만지셨고 또한 성령으로 그를 감동시키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삼손의 이야기는 타락한 지도력의 어두운 그림입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더욱 밝게 빛날 따름입니다!** 하지만 그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행사가 드러났습니다! 히브리서에서 그는 믿음의 영웅으로 묘사됩니다! 우리가 그를 과소평가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반창고처럼 임시방편이 아니며 어떤 다른 종류의 신성한 위기관리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미리 정하신 그분 계획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삼손을 넘어 완전한 구세주를 봅니다!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표시된 분: 우리를 위해 적절한 때에 나타난 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으며 우리를 그분의 눈앞에 거룩하고 귀하게 여기셨습니다!